

신행수기

작은 정성이 큰 사랑으로 <중> 유경남 (용인시 기흥읍)

우리 회원들 중에는 아직 불교 기초교리도 잘 모르고 기복신행으로만 일관하는 분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제대로 배워 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오롯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저변한 마음이 곧 도량”이라는 계승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량 하면 사찰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계승을 열하다 보면 우리 칠봉회 회원이 봉사하는 이 장소가 바로 도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회원들에게 <봉사의 길>이란 책도 구입해서 읽어 보라고 나눠 주기도 하고 큰 스님의 법어집도 틈틈이 읽어보라고 권했다. 서로 돌려가면서 읽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흐릿하기도 했다.

우리 칠봉회 회원들이 차츰 불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회원들 요청에 의해서 조금씩 회비를 모아 이웃 사랑도 나누었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무의탁 노인들에게 김장 김치와 떡도 나눠주면서 위로도 해드렸다. 이런 활동으로 1993년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회원들이 질서있게 한자리에 앉아서 중환자 수술실에서 쓰이는 거즈를 접을 때는 그 손놀림이 흡사 기계와 같이 움직인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한 가지 일에 심취해 있는 듯 보인다. 그럴 때는 회원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비어있어 잡념이나 번뇌와 망상 따위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것이다.

곧게 다룬 입과 눈을 아래로 내리 깔고 짹짹 움직이는 손놀림만 응시하는 그 표정을 굳이 표현한다면 ‘똥똥 총만’이라고 할까. 내가 몇 해 전 법사 스님의 수상집을 읽고 바로 이 ‘똥똥 총만’이란 글말을 보고 묘한 매력을 느꼈다.

1993년 10월 청명한 가을날 석정 스님을 모시고 군 불자와 그 가족들이 모인 법당에서 성대히 전인식을 봉행했다. 모두가 환희 속에 찬 모습들이었다. 그 자리에서 김중순 회원이 그 부대 군불자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을 보고 부처님의 위신력에 눈시울이 뜨거워



그림 · 김홍인

봉사하는 이곳이 바로 도량 하고싶은 일 갈수록 늘어나

동안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우리 회원이자 나의 제자이기도 한 김중순 법우는 기사단 부사단장님이 근무하는 부대에 아직 군법당이 없어 안타까워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열심히 성금을 모았다.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칠봉회 회원들도 많이 동참해서 군법당 건립에 일익을 담당했다.

1993년 10월 청명한 가을날 석정 스님을 모시고 군 불자와 그 가족들이 모인 법당에서 성대히 전인식을 봉행했다. 모두가 환희 속에 찬 모습들이었다. 그 자리에서 김중순 회원이 그 부대 군불자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을 보고 부처님의 위신력에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작은 사넬들이 모여 큰 강물이 되어 흐르듯 나의 주변 사람 모두에게 봉사의 의의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옛날 내가 교직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과 친목 모임을 만들어 한달에 한 번씩 강원도 원주에서 만나고 있을 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 마음을 모아 한 달에 한번씩 악원들을 찾아 읍사를 대접해 드리면서 자비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 중 한 친구는 그것을 계기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다. 술선수법하는 훌륭한 봉사자로 많은 활동을 하여 원주시에서 인정을 받고 시민상까지 받았다.

1993년 어느 날, 나는 짙은 초상 전도재를 올리고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열차리에 놓인 신문을 집어드는 순간 제일 먼저 나의 눈길을 멈추게 하는 기사가 있었다. 진실 복지관에서 국어사랑 지도교사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기사였다.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20대에

서 50대 중반의 20여명에게 한걸음 가르쳐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들은 모두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할 기회를 놓친 문맹자들이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에 있기 때문에 꽤히 승낙을 하고 다시 교단에 서는 기분으로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문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나는 그들의 인생 상담자가 되어 여러가지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연이 많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대행안양한 마음선원장) 큰스님의 법어 중 “인생은 어떤 생경경쟁이지만 알고 보면 공부다”라는 가르침을 인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알기 쉽게 사상에 대해 설명을 했다.

처음 4가지 고통에 대해서는 뭐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말하느냐는 듯 시큰둥한 반응 일색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애별고’, ‘원증회고’, ‘오음성고’, ‘구부득고’를 말해주니가 진지하다 못해 나중에는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해주어 나를 감동케 했다. 이어 인연의 법칙을 가르쳤다. 그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여 책도 읽을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사를 글로 나타낼 수 있고 은행에 가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일을 볼 수가 있게 됐다. 그들은 하나 같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까지 말하며 기뻐했다.

나의 가르침이 그들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빌며 1년 과정을 마쳤다. 헤어지기 섭섭하여 눈물 흘리는 분들에게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위로하며 글사랑 모임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떠나왔다. 당시 나는 정주에 포교자 자주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겨서이다.

열악한 포교당 운영에 힘들이 하시는 스님을 도와 불교서적(기초교리, 큰스님 법어집) 불교용품을 실어 나르며 포교활동에 적극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젊은 엄마들이 불자가 되어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킬레이 수행일기 <하>

돌이켜 보면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에 귀의하고 예경하는 것이 불자의 기본 도리라고 알면서도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 불교대학을 3기로 수료하고도 교수님들의 강의만 들었지 법당 한번 찾지 않고 돌아 온 것은 알음알이가 늘어난 만큼의 행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삼보 예경의 믿음을 심어준 분은 심한준 교수님이자 스님이었다.

“부처님은 각자(覺者)로서 우리들에게 부처의 종자가 있으므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길과, 그야말로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대 자유인의 면모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경전) 또한 불자가 가야 할 여정에 나침반이며 불법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서 만민에게 적용되는 평화를 우선하는 공동체로서 따라야 합니다.”

결국 삼보를 예경하는 것은 크게 보



정상현
춘천시청 지적과장

유료 회원들끼리 법회를 볼 때에는 자청 포교사가 되어 교수님들이나 스님들께 귀동냥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천수경> 독송으로 시작하여 직장에서는 틈 나는대로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사경하며 잠자평화를 우선하는 공동체로서 따라야 합니다.”

독송으로 하루 시작 독송으로 마무리 편견·자만심 사라져 늘 마음 편해

면 자유, 평등, 평화를 실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이후부터는 공사를 막론하고 사찰을 찾을 때에는 제일 먼저 법당에 참배하는 것이 생활화 되었다.

지역사회 친구들과 같이 하는 ‘춘천 불이회’에서는 불교가 싫지만 않다면 누구든지 가입을 받아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중에는 교회에 나가서 친구도 있는데, 법회시에 법사 스님께 삼배의 예를 드림과 아울러 자신의 자성불에게 절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불교인들의 잘못인지도 모르지만,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형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편견을 거둬 버리고서라도 감사패를 받고 떠나왔다. 당시 나는 정주에 포교자 자주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겨서이다.

나를 불교대학을 먼저 다녔다는 이

강과 더불어 월 2회 정기법회를 주관하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주말에는 관내 사찰을 찾아 스님들께 법문을 청하며 재(財) 보시는 못 하더라도 몸으로, 뜻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일하고 있다.

이 때때로인지 몰라도 불법을 포교하고 사찰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님들과 춘천시청도반회, 춘천 불이회, 석왕사서림회, 춘천불교청년회, 택사회사법회 등 불자들의 도움이 커 되도록 주고 말로 받는 행국이 되었다. 좋기는한데 이것 역시 빛이자 값이 아할 업이라고 생각하니 한편 걱정이 되지만 피하지 않고 나아가기로 마음 편히 생각하고 있다.

마음이 욕심이 일면 초라해지고 비우면 넉넉해진다는 말을 잊지 않고 모든 일이나 만남에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는’ 수주자주(隨處作主)의 삶을 살아가고자 끝내는 ‘선 자리마다 진실이 실현될 것’이라는 입처개진(立處皆眞)이 실현되리라 굳게 믿는다.

오늘도 직장에서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각양 각색의 부처님을 만나러 나선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이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화(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iswhy@buddhapia.com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흥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높이:36m 아파트 12층 높이)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극락도·지옥도·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불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 ▶ 대형주차장안비
- ▶ 점심공양 가능
- ▶ 입장료 무료
- ◆ 주위 명소: 흥천온천, 천년고찰 수터사

● 찾아오시는 길

연화사

● 매표: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출발)

www.yhs108.com

강원도 흥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업산 연화사
전화: (033)433-1815, 433-2009 팩스: (033)433-5206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불자들에게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카렌다

2005년 불교카렌다 출시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 * 1,000부이상 주문시 표지그림으로 귀 사찰을 넣어서 인쇄를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진 또는 필름사용 가능)
- * 각 사찰카렌다 독판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카타록을 보내드립니다.

원일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 (02)2277-0304
FAX: (02)2268-6732
Homepage: www.wonil-c.co.kr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틈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태

-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록 043-647-2378, 011-467-147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모공사)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6-9294-8580
전라도: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